

<div data-bbox="204 353 571 443" data-label="Section-Header"> <h1> 보도자료 </h1> </div> <div data-bbox="263 465 513 510" data-label="Text"> <p>2013. 4. 22.</p> </div>	<div data-bbox="651 257 758 35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33 250 1289 358" data-label="Text"> <p>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p> </div>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강동혁 (☎ 3480-1924)
	공보관실 ☎ 3480-145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

양형위원회는 2013. 4. 2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48차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관하여 최종 의결함

①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경과

① 양형기준 수정안 마련

-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및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3. 3. 25. 양형위원회 제47차 전체회의에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② 의견수렴절차

- 2013. 3. 26. ~ 2013. 4. 10. : 총 36개 관계기관에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 국회,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등 주요 기관의 의견 회신받음
- 살인범죄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기관 : 10개 기관
- 성범죄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기관 : 13개 기관

③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 의견수렴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3. 4. 22.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함

②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권고형량 범위 상향(양형기준 수정안과 동일)

-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 및 기존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함(권고형량 상향 유형 : 보통동기 살인, 비난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
- 다만,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경우는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반영해 형량범위가 정해진 것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함

◆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후 형량범위 비교

수정 전				수정 후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참작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참작동기 살인	3년-5년	4년-6년	5년-8년
보통동기 살인	6년-10년	9년-13년	12년-17년	보통동기 살인	<u>7년-12년</u>	<u>10년-16년</u>	<u>15년 이상</u> <u>무기 이상</u>
비난동기 살인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u>10년-16년</u>	<u>15년-20년</u>	<u>18년 이상</u> <u>무기 이상</u>
중대범죄결합 살인	14년-18년	17년-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중대범죄결합 살인	<u>17년-22년</u>	<u>20년 이상</u> <u>무기</u>	<u>25년 이상</u> <u>무기 이상</u>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23년	22년-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u>20년-25년</u>	<u>23년 이상</u> <u>무기</u>	<u>무기 이상</u>

○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의 양형기준 설정 (양형기준 수정안과 동일)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시행 예정) 제10조 제1항에서 신설된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범죄를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섭함

○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부 수정 (양형기준 수정안과 동일)

-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함

○ 참작동기 살인의 ‘유형의 정의’ 예시 부분의 수정(양형기준 수정안에서 일부 변경)

※ 기존 양형기준상의 참작동기 살인에 대한 유형 정의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수정안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참작동기 살인의 ‘유형의 정의’ 예시 부분에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를 추가함

※ 최종 의결내용

- 수정안의 위 예시 추가 부분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변경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에서 귀책사유의 예시로 규정된 ‘스토킹’ 부분을 삭제 (수정안에는 없던 내용임) : 스토킹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살인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도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함

③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향(강도강간은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일부 변경, 특수강도강제추행은 양형기준 수정안과 동일)
 - 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범행의 흉포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정한 양형의 필요성이 큼

- 위 두 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법정형에 비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등을 반영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조정함(강도강간의 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법상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강제추행의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다만, 강도강간죄의 경우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형량이 다소 높다는 관계기관 의견조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에서 권고형량 범위를 재조정

※ 강도강간

	감경	기본	가중
현행기준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수정안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최종 수정 양형기준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특수강도강제추행

	감경	기본	가중
현행기준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수정 양형기준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양형기준 수정안과 동일)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가중영역이 '13년 이상, 무기'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12년 이상, 무기'를 '13년 이상, 무기'로 상향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의 양형인자 삭제(양형기준 수정안과 동일)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음

-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양형기준 수정안과 동일)**

- 2012. 12. 18. 개정된 형법,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령(2013. 6. 19. 시행예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된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

■ **성범죄 관련 법령의 주요개정 내용**

형법 : 성년 유사강간,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 신설 (징역 2년)

아청법 : •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강간 : 5년 이상 → 무기, 5년 이상
- 유사강간 : 3년 이상 → 5년 이상
- 강제추행 : 1년 이상 → 2년 이상

•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구성요건 신설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7년 이상
- 강간 등 치사 : 사형, 무기, 10년 이상

■ **양형기준 신설**

◎ **성년 유사강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에 포섭하되, 법정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 영역 : 1년 - 2년], [기본 영역 : 1년 8월 - 3년 4월], [가중 영역 : 2년 8월 - 4년 8월]

◎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2유형에 포섭하되, 법정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 영역 : 1년 - 2년], [기본 영역 : 1년 8월 - 3년 4월], [가중 영역 : 2년 8월 - 4년]

■ 권고형량범위 상향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에 포섭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나, 서술식기준의 형량범위 감경비율을 종전 ‘1/2’에서 ‘2/3’로 수정하는 것으로 권고형량 범위 상향

	감경	기본	가중
현행기준	8월 - 1년6월	1년3월 - 2년6월	2년 - 3년6월
수정 양형기준	1년 - 2년	1년8월 - 3년4월	2년8월 - 4년8월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은 기존에 성년자 대상 유사강간과 구분없이 ‘강제유사성교’라는 이름으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에 포섭되어 있었으나, 이를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으로 이동시키면서 권고형량 상향

	감경	기본	가중
현행기준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수정 양형기준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치상/치상

- 위 범죄는 기존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중 1유형에 포섭되어 있었으나, 이를 2유형에 포섭하는 것으로 상향조정

	감경	기본	가중
현행기준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수정 양형기준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치상/상해

- 위 범죄는 기존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중 2유형에 포섭되어 있었으나, 이를 3유형에 포섭하는 것으로

상향조정

	감경	기본	가중
현행기준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수정 양형기준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④ 수정 양형기준의 관보게재 및 시행시기

- 관련규정(양형위원회 규칙 및 운영규정)
 -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한 날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의 시행시기
 - 살인범죄 : 2013. 5. 15.(위원회 의결 1개월 이내)
 - 성범죄 : 2013. 6. 19.(성범죄 관련 개정 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춤)

⑤ 3기 양형위원회의 활동 종료 관련

- 3기 양형위원회는 2011. 4. 27. 출범하여 2013. 4. 26. 2년간의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음
- 3기 양형위원회는 그 동안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마쳤고, 이로써 전체 구공판 사건 대비 78%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정됨
- 또한 3기 양형위원회는 2012. 1.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한차례 수정한 바 있고, 이번에 살인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작업까지 완료하는 등 국민여론 및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

I.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1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

○ 권고형량 범위 상향 조정의 논의 배경

- 살인범죄의 경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성범죄, 뇌물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권고형량 범위가 낮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으로 제기되어 왔음
- 그러한 지적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살인범죄의 권고형량을 규범적으로 상향 조정함
- 다만, 참작동기 살인 유형은 범행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다시 상향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참작동기 살인유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하여만 권고형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함

○ ‘잔혹한 범행수법’을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

- ‘잔혹한 범행수법’은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사유는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요소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계획성 이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수정함

2 양형기준의 명확화 및 개정법령 등을 반영한 수정

○ 양형인자 중 ‘중한 손해’의 의미규정 수정

- 살인미수범죄의 경우 어느 정도 손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가중인자인 ‘중한 손해’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대다수의 살인

미수범죄에 있어 위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중한 상해’의 의미규정 중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라는 전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상해의 주수에 의존해 기계적으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형을 가중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함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참작동기 살인 유형(제1유형)의 정의 부분 수정

- 현재 제1유형의 ‘유형의 정의’ 부분의 예시로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장기간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자기 또는 친족이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 등)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삶을 비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을 살해한 경우,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 등도 동기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그와 같은 사례를 ‘책임조각사유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예시하여 참작동기 살인의 유형정의 부분에 추가
- 한편,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에서 귀책사유의 예시로 규정된 ‘스토킹’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살인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도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큰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시에서 삭제함

○ 살인미수범죄 서술식 기준 수정

-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기존의 서술식 양형기준은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살인죄 권고영역에 “무기” 또는 “무기 이상”이 포함된 경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 살인미수범죄에 대한 서술식 양형기준 단서에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형량범위를 명확히 정함

○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의 양형기준 설정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6. 19. 시행 예정)은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신설함(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한편 강간살인, 강도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등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이 아닌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함되어 있고 법정형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동일하므로, 신설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살인범죄 제4유형에 포섭함

II.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내용

① 기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상황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황의 논의배경

-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강도강간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7년 - 1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성폭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권고형량 기본영역은 [6년 - 9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강도강간죄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고 범행의 흉포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 및 기존의 양형기준 시행성과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함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황

-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가중영역이 [13년 이상, 무기]인데 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가중영역이 [12년 이상, 무기]로 되어 있어서,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하여 1개의 특별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권고형량 범위가 사망하였을 때 보다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함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의 양형인자 수정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음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삭제

2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

○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 (2013. 6. 19. 시행)

- 형법 : 성년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 신설 (각 징역 2년 이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강간 / 준강간, 위계·위력 간음 : 5년 이상 → 무기, 5년 이상
 -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 위계·위력 유사강간 : 3년 이상 → 5년 이상
 - 강제추행, 위계·위력 강제추행 : 1년 이상 → 2년 이상
 - (2)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치사 규정 신설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7년 이상
 - 강간 등 치사 : 사형, 무기, 10년 이상

○ 형법상 신설된 죄의 권고형량 설정

- 성년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신설)
 - 표 하단의 서술식 기준과 같이 권고형량 설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13세 미만 의제유사강간(신설)
 - 표 하단의 서술식 기준과 같이 권고형량 설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아동법상 처벌강화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수정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변동없음)

- 청소년강간(위계·위력 간음 포함)죄는 개정 전 법정형이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나, 2유형에는 개정 청소년 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등이 함께 포섭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인해 별도로 형량범위를 수정하지 않음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상향)

- 다만 청소년 유사강간은 기존에 성년자 대상 유사강간과의 구분 없이 '강제유사성교'라는 이름으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에 포섭되어 있었으나, 개정법률의 상향된 법정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하면서 청소년강간과 같이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에 포섭

[현행 양형기준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수정 양형기준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상향)

- 수정 양형기준표 서술식 기준과 같이 형량범위 감경비율을 종전 '1/2'에서 '2/3'로 수정하는 것으로 권고형량 범위 상향

[수정 양형기준표]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1/2로 감경

○ 신설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치상” 등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권고형량 설정

- 처벌규정은 개정법률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각 해당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존에 이미 설정되어 있음

[현행 양형기준표]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 상해가 발생한 범죄 자체의 법정형 및 기본범죄의 내용과 법정형을 고려하여 ①성년 유사강간, ②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③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④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포섭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 유사강간 (형량변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유형 - 2유형에 포섭기로 의결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유형 - 2유형에 포섭기로 의결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형량변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3유형 - 3유형에 포섭기로 의결 ●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유형 - 3유형에 포섭기로 의결

[수정 양형기준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